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음 12월 4일) 제22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산림 활용 국가사업 본격 추진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4개 올해 145억원 투입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산림을 활용한 4개 국가사업이 올해 145억 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된다.

대한민국 서남권인 지리산, 덕유산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43억원을 투입하며, 새만금 관광의 핵심지역인 고군산군도에 산림문화·휴양 공간과 체류형 관광 수요 충족을 위한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78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 해안형 수

목원 모델로 조성되는 새만금 국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19억원도 투자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노령산맥권역의 다양한 휴양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 예산 5억원 등 총 145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예비타당성 심사 장기화, 지방비 부담 요구 등 국가예산 반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상담과 지역 국회의원 공조로 지난해에 4개사업 모두 1년차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2년차인 올해부터 145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덕권산림치유원은 지난해 8월 산림청, 도, 진안군과 MOU체결로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하여, 진입로 개설, 기반조성 및 사업부지 매입 추진 협의와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신시도자연휴양림은 지난해 8월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를 당초 86억원에서 230억원으로, 144억원 증액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함에 따라 토목공사와 기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수목원은 국제적인 수목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제 수준에 맞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는 한편,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은 지난해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복지국장은 "산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면서 산림이 주는 무형의 가치를 활용한 치유(therapy), 건강(health), 웰빙(wellbeing)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유아에서 고교까지

“공교육 기준 마련”

김승환 교육감, 새해 주요사업 내용 설명

“새롭게 빛나라 전북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김승환 교육감이 혁신교육 완성을 위한 결심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학생 개인의 성장에 주목하고 지원하는 학교문화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복지와 학생안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간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내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육구입비와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 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는 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자치 최선·특권교육 폐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하기로
학생안전정책 지속 확대·강화

특히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전북교육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교육 방향과 맞아

이 있다면서,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공교육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전북교육청의 주요사업 내용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의 최종 목표는 학교자치가 있다. 이는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교육 관료에서 학교와 교사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를 비롯한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국가권력은 교육에서 결과의 평등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저어도 청소년기의 교육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성을 기르는 보편교육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올해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인권·노동·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김진성 기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대 ‘제로페이’ 도입 대비

도, 도내 소상공인 기관 등과 가맹점 모집·홍보 협약 체결

전북도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대 ‘제로페이’ 도입을 앞두고 가맹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로페이를 서울, 경남, 부산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인프라 및 가맹가입절차 등의 개선점을 보완하여 조만간 전 지역으로 확산 시킬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제로페이 전북’ 도입을 앞두고 소상공인 유관기관, 단체와 손을 잡고 가맹점 확보와 홍보에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다.

전북도는 8일 도청에서 제로페이사업단을 비롯한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상인연합회, NH농협, 전북은행, 전북지방우정청 등 11개 도내 소상공인 유관 기관·단체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과 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맹점 확보를 위해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을 다지는 협약식을 갖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협약내용은 ‘제로페이사업단’은 가맹점 신청 및 승인절차 등 제로페이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전북도 등 행정기관’은 제로페이 안착을 위해 홍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소상공인 협단체 및 금융기관’은 가맹점 신청 접수 및 가입 독려 등 가맹점 모집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자 제로페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판매자와



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0%대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를 위한 전북도 소상공인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약식에 나선 전북도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협약 증서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의 제로페이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도는 제로페이 도입과 동시에 제로페이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 많은 점포가 가맹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과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이 카드수수료 부담이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로페이 도입을 속도감있게 준비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없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로페이는 정부에서 주관하여 개발·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방식이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시 판매자는 매출

액의 0.8%~2.3%를 카드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나, 제로페이 가맹점에 정착되면 연간 매출액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가 전혀 없게 되어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 혜택과 공영주차장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김진성 기자

謹賀新年

희망찬 己亥年 새해!

남원시의회는 유쾌·상쾌·통쾌하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